

3. 야마토 왕국 건국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의 유사성

(1) 건국 설화의 원형(原形)

사람들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고사기나 일본서기의 신대(신들의 시대) 편을 처음으로 읽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수많은 천신과 지신(地祇)들의 장황하고도 기이하게 들리는 이름들 때문에, 우선 골치가 아파 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름들이 길기는 왜 또 그렇게 긴지, 이름 한 개도 제대로 읽기가 무척이나 힘들 것 같다. 또 그들이 엮어 내는 이야기라는 것이, 현대인의 감각을 가지고 보면, 너무도 유치하고 황당하게 들리기 때문에, 몇 페이지 보다가는 결국 내던져 버리게 되기 십상이다.

설화란 신화와 전설 등을 줄거리로 한 옛이야기를 말한다. 김부식(金富軾)이 쓴 삼국사기의 건국 설화들은 오히려 깔끔하게 잘 요약이 된 셈이다. 김부식이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로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규보(李奎報)의 구 삼국사 고구려 건국 설화도,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 이야기에 비교해 보면 아주 점잖은 편이다.

고려 중기의 정치가이며 역사가인 유학자 김부식(1075-1151년)은 신라왕실의 후예이다. 신라가 망할 무렵, 그의 증조부는 고려 태조에 귀의하여 경주지방의 행정을 담당했었고, 그의 부친 때부터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정부의 관료로 진출했다. 김부식은 서경 천도를 주장하는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경주계통 문신 귀족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1145년에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사기를 편찬 했다 한다.

고려 후기의 문인 이규보(1168-1241년)는 9세 때

이미 신동으로 알려졌고, 술을 좋아하여 자유분방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당시의 문란한 정치와 혼란된 사회상을 보고 크게 각성하여, 32세부터 최충현 정권 아래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다. 그의 나이 26세가 되던 1193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보고,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장편 영웅서사시인 동명왕편을 지었다. 동명왕편은,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포함되어, (사후에 고종의 칙명으로) 1251년에 간행되었다.

김부식 뿐만 아니라 이규보가 기록한 건국설화도, 이야기 중에 간간히 나오는 비현실적인 대목들이 그저 애교로 받아 줄 수 있는 수준은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 동화책 이상의 흥미를 주기가 힘든 얘기들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린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말해주는, 나름대로의 특이한 건국 설화가 있게 마련이다. 또 어느 나라 국민이든, 나름대로의 건국 이상과 건국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건국 설화란 어느 정도 신비하고 비현실적인 얘기로 미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건국 설화란 상당 부분 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상(ideal)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3백년도 안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이념과 건국 과정도 거의 설화의 수준으로 미화된 것이라고 한다.

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 이야기뿐 아니라 고구려 건국 설화도, 20여 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읽어보게 되었다.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양쪽 이야기들 사이의 유사성이다. 물론 서술 내용이 한 줄 한 줄 모두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주제들(*motives*)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천신 혹은 일신(日神)의 아들이라는 새 지배자가, 역사적으로 그 위치가 분명하게 구명되지 않은 장소로 내려오고, 그 땅의 토착 통치자는 자리를 피해준다. 이 천제(天帝) 혹은 천신의 아들은 물의 신, 즉 하신(河神) 혹은 해신(海神)의 딸과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다. 여기까지

가 신대에 속하는 신화가 된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장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 부분이, 완전히 인간화된, 인대(사람들의 시대)의 전설이 된다.

우리는 고구려 건국 설화와 고사기-일본서기 건국 설화 양쪽의 핵심적인 주제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현저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제의 아들 혹은 천손(天孫)이, 명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내려(降)와 지상의 세계를 다니다가 (물의 딸인) 미인을 만난다는 대목에 와서는, 양쪽의 표현 기법까지도 똑 같다. 그런데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 은, 완전히 인간화 된 아들을 낳은 다음,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한다. 건국 시조를 낳는 역사적인 역할이 끝나면, 이들 남녀가 각기 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숙명 역시 똑같은 구도인 것이다.

비유를 해 본다면, 현란하게 피어 있는 꽃들과 무수한 잔가지들을 다 쳐 버리고, 나무의 원형(原形)을 쳐다보면, 두 개의 나무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즉, 누군지 고구려 건국 설화에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 일본 땅에 신천지를 개척한 다음에, 상상력을 한껏 발휘해서 독창적인 건국 설화를 쓴다고 쓴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 그 근본이 되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대 이야기를 읽기 전에, 김부식의 고구려 건국 설화와, 특히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동명왕 편은 꼭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다.

(2) 김부식의 고구려 건국설화

나는 우선, 비현실적인 내용을 최소화했다는 김부식의 고구려 건국설화를 소개하려 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인데, 사람들은 그를 추모 혹은 상해라고도 불렀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 일본서기는 주몽을 가리켜 한자로 중모라고 썼고, 속일본기는 도모라고 썼다.

고구려 본기가 얘기하는 주몽의 출생 설화는, 주몽의 부친이며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주몽의 모친이며 하신의 딸인 유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다.

어느 옛 날, 부여국의 재상 아란불이 왕에게 말 했다: “근자에 천신이 내려와 저에게 이르기를,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 동해 바닷가에 가섭원 이라 부르는 땅이 있는데, 기름지므로 5곡을 심기에 적당하니,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하다’ 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은 마침내 왕을 설득하여 가섭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부르게 하였다. 그러자 부여의 옛 도읍지에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나,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부르는 사람이 와서 도읍을 정했다.

어느 날 동부여 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라는 장소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왕이 그녀에게 어찌 이러한 곳에 와 있게 되었는가 그 사연을 물으니,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본래 강의 신인 하백(河伯)의 딸로서 이름은 유화라 합니다. 어느 날 여러 아우들과 더불어 나가서 노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와서, 스스로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심산 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정을 통하고 가버린 다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에게 몸을 바쳤다고 책망하고 내 쫓으므로, 끝내는 이곳 우발수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부여 왕은 이상하게 여겨 그녀를 데려다가 골방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그녀를 비추고,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또한 그녀를 따라다녔다. 드디어 그녀는 잉태를 했고, 후에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닭 되들이만 하였다.

동부여 왕은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이를 먹지 않았다. 다시 길 가운데 버렸지만 소와 말이 이를 피하고, 나중에는 들판에 내다 버렸는데 새들이 모여들어 날개로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 알을 쪼개 보려고 하였으나, 또한 깨뜨릴 수 없었으므로, 드디어는 유화에게 돌려 주었다. 유화가 형겅으로 알을 덮어 따듯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그 속에서 나왔는데, 기골이

日本書紀 天智 七年 冬十月 大唐大將軍英公 打滅高麗 高麗仲牟王初建國時 欲治千歲也 母夫人云 若善治國不可得也 但當有七百年之治也 今此國亡者 當在七百年之末也 上 371

續日本紀 卷第四十 桓武天皇 延曆八年十二月 乙未 皇太后崩... 壬子葬於大枝山陵 皇太后 姓和氏 諱新笠 贈正一位乙繼之女也 母贈正一位大枝朝臣眞妹 后先出自百濟武寧王之子純陀太子... 改姓爲高野朝臣 今上即位 尊爲皇太夫人 ... 九年追上尊号 曰皇太后 其百濟遠祖都慕王者 河伯之女 感日精而所生皇太后 卽其後也 因以奉諡焉 續五 448-452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第一 始祖 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一云鄒牟 一云象解 (象解 恐當作衆牟) 先是扶餘王... 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於此 汝其避之... 遂勸王 移都於彼 國號東扶餘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 於是時得女子於太白山南優渤水 問之曰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游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下 鴨潦邊室中私之 卽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優渤水 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 許王棄之與犬豕 皆不食 又棄之路中 牛馬避之後棄之野 鳥覆翼之 王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男兒 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 巖然異常 自作弓

矢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金蛙有七子 常與朱蒙遊戲 其技能皆不及朱蒙 其長子帶素 言於王曰 朱蒙非人所生 其爲人也勇若 不早圖 恐有後患 請除之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而減食令瘦 驚者善養令肥 王以肥者自乘 瘦者給朱蒙 後獵于野 以朱蒙善射 與其矢小 而朱蒙殪獸甚多 王子及諸臣 又謀殺之 朱蒙母陰知之 告曰 國人將害汝 以汝才略何往而不可 與其遲留而受辱 不若遠適以有爲 朱蒙乃與烏伊摩離陔父等三人爲友 行至淹遞水 欲渡無梁 恐爲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者垂及如何於是 魚鼈浮出成橋 朱蒙得渡 魚鼈乃解 追騎不得渡 朱蒙行至毛屯谷 遇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朱蒙問曰 予等何許人也 何姓何名乎 麻衣者曰 名再思 衲衣者曰 名武骨 水藻衣者曰 名默居 而不言姓 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默居少室氏 乃告於衆曰 我方承景命 欲啓元基 而適遇此三賢 豈非天使乎 遂揆其能 各任以事 與之俱至卒本川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一云 朱蒙至卒本扶餘 王無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時朱蒙年二十二歲 是漢孝元帝建昭二年 ... 四方聞之 來附者衆... 三上 260-261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始祖 東明聖王 十四年 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 以太后禮葬之 遂入神廟 冬十月 遣使扶餘饋方物 以報其德 三上 261

준수하고 생김생김이 영특하였다. 그 나이 7세가 되자 남달리 뛰어나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 말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주몽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동부여 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지만, 그 재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맨 위의 왕자가, 왕에게 “주몽은 여느 사람같이 출생 한 바도 아니고, 그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므로,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를 제거함이 옳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은 이를 듣지 않고, 주몽으로 하여금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날랜 말은 먹이를 적게 먹여 여위게 만들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그러자 왕은 살찐 말을 골라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 후,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주몽이 활을 너무나 잘 쏘다하여 화살을 적게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몽이 잡은 짐승이 심히 많았으므로, 왕자와 신하들은 다시금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주몽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몰래 아들에게 말 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의 능력으로 보아 어디 간들 안 되겠느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옥을 당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몽은 곧 오이, 마리, 협부 등 3인으로 벼를 삼고 길을 떠났다. 업체수에 이르러 강을 건너고자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주몽은 강물에 빌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자인데, 나를 잡으려 군사들이 추격을 해 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몽 일행은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주몽은 모둔곡 이란 곳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 주몽이 “그대들은 어떤 사람이며 성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 벼를 입은 사람은 재사라 하고, 장삼 옷을 입은 사람은 무골이라 하고, 마름 옷을 입은 사람은 묵거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성(姓)은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은 재사 에

게 극씨 라는 성을 주고, 무골 에게는 중실씨 라는 성을 주고, 목거 에게는 소실씨 라는 성을 주었다. 이 구절은, 후에 야마토 왕국의 카바네(姓) 제도의 유래를 깔 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주몽은 이들 세 사람에게 말 했다: “나는 지금 천명을 받들고 나라를 세우려 가는데, 마침 세 명의 어진 사람들을 만났으니, 이 어찌 하늘이 보내준 것이 아니라?” 주몽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의 임무를 주고 (遂揆其能 各任以事)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이 구절 역시, 후에 야마토 왕국의 베(部) 제도의 근원을 깔 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졸본천 주위는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주위의 산하가 험준하므로 드디어 그 곳에 도읍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비류수 상류에 보통 집을 짓고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고를 성으로 삼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이 아들이 없었던 차에, 주몽을 보자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왕이 돌아가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도 한다. 이 때 주몽의 나이 22세였다. 그 해가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이었는데 (B.C. 37년),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주몽을 모시며 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기원전 24년 8월,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동부여 에서 돌아가셨다. 동부여 왕은 유화를 태후의 예로써 장사 지내고, 신묘까지 건립 해 주었다. 고맙게 생각한 주몽은, 사신을 동부여로 보내 고구려 토산물을 바침으로써 그 덕에 보답하였다. 이상이 1145년에 완성된 김부식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내용이다.

(3)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 편

이규보가 1193년에 쓴 동국 이상국집의 동명왕 편은 이렇게 시작 한다: “세상 사람들은 동명왕의 신통하고

東國通鑑 卷之一 ... 相阿蘭弗曰 夢天帝謂我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 汝其避之... 遂勸王移都國號東扶餘 其舊都有人自稱天帝子解慕漱來都 焉...幽於室中 爲日所炤引身避之日 影又逐而炤之 因有娠生一卵... 男子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自 作弓矢 射之發無不中 扶餘俗謂善 射爲朱蒙 故名之...我是天帝子 河 伯外甥...於是魚鼈成橋... 乃解追騎 不及...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 氏默居少室氏... 至卒本扶餘沸流 上都焉 號高句麗因姓高 東 29-30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三 古律詩 東明王篇并序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越癸丑 四月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 異之迹 踰世之所說者 然亦初不能 信之 意以爲鬼幻 及三復耽味 漸涉 其源 非幻也乃聖也 非鬼也乃神也 况國史直筆之書 豈妄傳之哉 金公 富弼 重撰國史 頗略其事 意者公 以爲 國史矯世之書 不可以大異 之事 爲示於後世 而略之耶 ... 矧東明之事 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 乃實創國之神迹 則此而不述 後將 何觀 是用作詩以記之 欲使夫天下 知我國本聖人之都耳... 漢神雀三年 ... 海東解慕漱 真是天之子 本記云 夫余...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勸王移都号東夫余 於舊都解慕漱爲 天帝子來都 初從空中下 身乘五龍 軌 從者百餘人 騎鶴紛襜褕... 天帝 遣太子 降遊扶余王古都 号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鶴...中止熊心山 經十餘日始 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劍 ... 自古受命君 何是非天賜... 朝居人

世中 暮反天宮裡 朝即聽事 暮即升天 世謂之天王郎 ...朝夕恣升降 此理復何爾 城北有清河 清河今鴨綠江也 河伯三女美 擘出鴨頭波 往遊熊心溪 自清河出遊雄心淵上... 神姿艷麗雜佩鏘洋與漢卓無異... 王因出獵見 目送頗留意 茲非悅紛華 誠急生繼嗣 王謂左右曰 得而為妃 可有後胤...三女見君來 入水尋相避...長女曰柳花 是為王所止 河伯大怒嗔 遣使急且駛 ... 報云天帝子高族請相累 指天降龍馭 徑到海宮遠 河伯大怒 遣使告曰 汝是何人 留我女乎 王報云 我是天帝之子 今欲與河伯結婚 河伯又使告曰 汝若天帝之子 於我有求婚者 當使媒云云 今輒留我女 何其失禮 王慙之 將往見河伯 不能入室 欲放其女 女既與王定情 不肯離去 乃勸王曰 如有龍車 可到河伯之國 王指天而告 俄而五龍車 從空而下 王與女乘車 風雲忽起至其宮 河伯乃謂王 婚姻是大事 妹贊有通法 胡奈得自恣 君是上帝胤 神變請可試 漣漪碧波中 河伯化作鯉 王尋變為獺 立捕不待跬 又復生兩翼 翩然化為雉 王又化神鷹 搏擊何大鷲 彼為鹿而走 我為豺而趨 河伯知有神 置酒相燕喜 伺醉載革輿 并置女於上 意令與其女 天上同騰轡 其車未出水 酒醒忽驚起 取女黃金釵 刺革從窾出 獨乘赤霄上 寂寞不迴騎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曰唯在所試 於是河伯於庭前水化為鯉隨浪而游... 河伯以為誠是天帝之子 以禮成婚...勸王大醉 與女入於小革輿中 載以龍車 ... 獨出升天 河伯責厥女...汝不從我訓 終辱我門...乃貶優渤中 唯與婢僕二漁師觀波中... 引得坐石女 ... 王知暮漱妃

이상한 행적을 많이 말한다. 계축년 4월에 구 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기하고 특이한 사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고 그저 귀신 얘기나 환상으로만 생각을 하였는데, 세 번을 반복하여 읽어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 보니, 환상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신의 얘기가 아니고 신의 얘기였다. 하물며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꼭 써야만 할 내용을 쓰는 글이니, 어찌 덮어놓고 허황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하였으랴. 김공 부식은 국사를 새삼 편찬 할 때, 좀 생각을 잘 못하고, 그 신기하고 특이한 기록들을 모두 생략 해 버렸다. 공은, 국사라는 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후세에 전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동명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창건한 시조에 대한 신기하고 특이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지 않으면 후세의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내 이제 시문의 형식을 빌려 구 삼국사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본래 성스러운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규보가 말하는 구 삼국사의 고구려 건국설화를, 되도록 김부식의 얘기와 중복을 피하면서, 소개를 해 보려한다. 이 역시 주몽의 부친 해모수와 모친 유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다.

한 나라 신작 3년 (기원전 59년),
해동 해모수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구 삼국사 동명왕 본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어느 날 부여의 재상 아란불이 왕에게 말 했다:
“근자에 천제가 제게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라 라’ 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은 왕을 권하여 도읍을 옮기고 동부여라 부르게 하였다. 그러자 예전 도읍 터에는 천제의 아들이 와

서 도움을 정했다.

여기까지는 “자칭”이란 표현만 빠졌지, 김부식의 삼국사기 내용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규보는, 김부식이 생략해버린 신기하고 특이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천제는 자신의 태자를 부여왕의 옛 도움지로 내려 보내는데, 그의 이름은 해모수 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해모수 자신은 다섯 마리의 용들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 1백여 명은 모두 흰 물새들을 타고 있었다. 웅심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10여 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새 깃” 관을 썼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찼다. (고구려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의 깃털을 꽂는 관습의 유래가 되는 것 같다.)

옛날부터 천명을 받은 임금은,
그 누구이던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닌가?
아침나절에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저녁이 되면 하늘의 궁전으로 돌아간다.

아침에는 지상에서 정사를 보고, 해가 저물면 곧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 사람들은 해모수를 천왕랑이라 일컬었다.

아침저녁 임의로 오르내리니
그 이치 어째서 그러한가.
성 북쪽에 청하가 있으니
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웠다.
압록강 물결을 헤치고 나와
웅심 물가에서 놀았는데,
해모수 왕이 사냥을 하다가 보고
눈길을 보내 마음을 두었다.
단순히 곱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하루 속히 낳아보려는 생각에서였다.
하백의 맏딸이 유화인데,
그녀가 왕에게 붙잡혔다.

仍以別宮置 懷日生朱蒙 是歲歲在癸...初生卵如升...王以爲不祥... 置之馬牧中 群馬皆不履 棄之深山中 百獸皆擁衛 王知天帝子妃 以別宮置之 其女懷中日曜因以有妊 神雀四年癸亥歲夏四月 生朱蒙 啼聲甚偉 骨表英奇 初生左腋 生一卵 大如五升許 王怪之曰 人生鳥卵 可爲不祥 使人置之馬牧羣馬不踐 棄於深山 百獸皆護 雲陰之日 卵上恒有日光 王取卵送母養之 卵終乃開 得一男 生未經月 言語並實 母姑舉而養 經月言語始... 母爲作弓矢 其弓不虛倚 謂母曰 羣蠅嚼目不能睡 母爲我作弓矢 其母以華作弓矢 與之自射紡車上蠅 發矢即中 扶余謂善射曰朱蒙 年至漸長大 才能日漸備 扶余王太子 其心生妬忌 乃言朱蒙者 此必非常士 若不早自圖 其患誠未已 年至長大 才能兼備 金蛙有子七人 常共朱蒙遊獵 王子及從者四十餘人 唯獲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乃執朱蒙縛樹奪鹿而去 朱蒙拔樹而去 太子帶素言於王曰 朱蒙者神勇之士 瞻視非常 若不早圖 必有後患 王令往牧馬 欲以試厥志 自思天之孫 廡牧良可恥...意將往南土 立國立城市 爲緣慈母在 離別誠未易 王使朱蒙牧馬 欲試其意 朱蒙內自懷恨 謂母曰 我是天帝之孫 爲人牧馬 生不如死 欲往南土 造國家 母在不敢自專 其母聞此言...士之涉長途 須必憑驂駟 相將往馬閑 即以長鞭捶 群馬皆突走 一馬驂色斐 跳過二丈欄 始覺是駿驥 潛以針刺舌 酸痛不受飼 不日形甚癯... 爾後王巡觀 予馬此即是 得之始抽針 日夜屢加餒 其母曰 此吾之所以日夜腐心也 吾聞士之涉長途者 須憑駿

足 吾能擇馬矣遂往馬牧...暗結三賢
友 其人共多智 南行至淹滯 欲渡無
舟 欲渡無舟 恐追兵奄及 迺以策
指天 慨然嘆曰 我天帝之孫 河伯之
甥...乘策指彼蒼...天孫河伯甥 避難
至於此 哀哀孤子心 天地其忍棄
操弓打河水 魚鼈駢首尾 屹然成橋
梯 始乃得渡矣 俄爾追兵至 上橋
橋旋圯 雙鳩含麥飛 來作神母使
朱蒙臨別 不忍睽違 其母曰 汝勿
以一母爲念 乃五穀種以送之 朱蒙
自切生別之心 忘其麥子 朱蒙息大
樹之下 有雙鳩來集 朱蒙曰 應是
神母使送麥子 乃引弓射之 一矢俱
舉 開喉得麥子 以水噴鳩 更蘇而飛
去 云云 形勝開王都 ...略定君臣位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十九年 夏四月 王子類利 自
扶餘與其母逃歸 王喜之 立爲太子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號東明聖王 琉璃明王立 諱類利 ...
母禮氏 初朱蒙在扶餘 娶禮氏女有
娠 朱蒙歸後乃生 是爲類利 幼年
出遊陌上彈雀 誤破汲水婦人瓦器
婦人罵曰 此兒無父 故頑如此 類
利慙歸 問母氏 我父何人 今在何處
母曰 汝父非常人也 不見容於國
逃歸南地 開國稱王 歸時謂予曰
汝若生男子則言我有遺物 藏在七
稜石上松下 若能得此者 乃吾子也
類利聞之 乃往山谷 索之不得 倦而
還 一旦在堂上 聞柱礎間若有聲 就
而見之 礎石有七稜 乃搜於柱下
得斷劍 一段遂持之與屋智句鄒都祖
等三人 行至卒本 見父王 以斷劍奉
之 王出己所有斷劍合之 連爲一劍
王悅之 立爲太子 至是繼位

三上 261-262

해모수가 유화를 잡아갔다는 말을 듣고, 하백은 크게 노했다. 사자를 보내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 딸을 잡아두는가?” 라고 꾸짖었다. 해모수는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지금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백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 “네가 만일 천제의 아들이고, 우리 집안에 구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중매를 시켜 말을 할 것이지, 이제 느닷없이 내 딸을 잡아두니, 어찌 그리 실례가 심한가?” 라고 문책을 했다. 해모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하백을 직접 만나 보려 하였으나, 물속에 있는 그의 궁궐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화를 그냥 놓아 보내고자 하니, 그녀는 이미 해모수와 정이 들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모수에게 “만일 용이 끄는 수레가 있다면 하백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해모수가 하늘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외치니, 조금 후에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다. 해모수가 유화와 함께 수레를 타니, 풍운이 홀연히 일어나며 하백의 궁에 도달 할 수 있었다.

하백은 해모수에게, “자네가 천제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해모수는, “무엇이든 시험하여 보소서”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연못에서 잉어로 화하여 물결을 따라 노니, 해모수가 수달로 변하여 이를 잡았고, 하백이 또 사슴으로 화하여 달아나니 해모수가 승냥이로 변하여 쫓았고, 하백이 꿩으로 변화하니 해모수는 매로 변화하였다.

하백은 해모수가 참으로 천제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자, 예를 갖추어 유화와 결혼을 시켰다. 하백은, 해모수가 흑시나 자기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워하여, 풍악을 베풀고 해모수에게 술을 권했다. 해모수가 크게 취하자, 딸과 함께 작은 가죽 수레에 넣어 용이 끄는 수레에 실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늘나라에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하지만 그 수레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 전에, 해모수는 술이 깨어, 유화의 황금 비녀로 가죽수레에 구멍을 뚫고, 홀로 빠져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이규보는 계속한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유화에게,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옥되게 하였다” 라 말하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 한가운데로 추방을 하였다. 우발은 못 이름인데 지금 태백산 남쪽에 있다.

어느 날,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가 와서 동부여 왕에게 고하였다: “근자에 무슨 짐승인지 (물을 막아 고기를 잡는) 어랑 속의 물고기를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물고기 도둑을 잡아보니, 유화였다.

동부여 왕은 그녀가 천제 아들의 왕비인 것을 알고 별궁에 거처하게 했더니, 햇빛이 그녀를 비추었고,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이 또한 그녀를 따라 갔다. 드디어 그녀는 잉태를 했다.

왕은 그녀가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즉시 별궁에 거처하도록 했다. 그녀가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그 해가 계해 년 이었다.

신작 4년 계해 년 (기원전 58년) 여름 4월에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 되 들이 만 하였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 라 말하고, 사람을 시켜 마구간에 버렸더니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모든 짐승이 호위를 했는데, 구름이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는 항상 햇빛이 있었다.

왕이 알을 도로 가져다가 유화에게 주어 기르게 하였더니, 알이 마침내 갈라지면서 한 사내아이가 나왔다. 낳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말을 하는데, 모두 정확하였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파리들이 눈을 건드려서 잘 수가 없으니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말 하였다. 어머니가 댓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아이 스스로 물레 위에 앉아있는 파리를 향해 쏘는데, 활을 쏘는 족족 맞혔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으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三 古律詩
東明王篇 并序...元子曰類利 得劍
繼父位... 類利少有奇節云云 少以
彈雀爲業 見一婦戴水盆彈破之 其
女怒而詈曰 無父之兒彈破我盆 類
利大慙 以泥丸彈之塞盆孔如故歸家
問母曰 我父是誰... 汝父是天帝孫
河伯甥 怨爲扶餘之臣 逃往南土
始造國家 汝往見之乎...汝父去時有
遺言 吾有藏物七嶺七谷石上之松
能得此者 乃我之子也 類利自往山
谷 搜求不得 疲倦而還 類利聞堂柱
有悲聲 其柱乃石上之松木 體有七
稜 類利自解之曰 七嶺七谷者七稜
也 石上松者柱也 起而就視之 柱
上有孔 得毀劍一片 大喜 前漢鴻嘉
四年夏四月 奔高句麗 以劍一片奉
之於王 王出所有毀劍一片 合之血
出連爲一劍 王謂類利曰 汝實我子
...王大悅立爲太子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三 古律詩
東明王篇 并序...在位十九年 升天
不下葭 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
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
云云 ...

東國李相國全集 卷第三 古律詩
東明王篇 并序...我性本質木 性不
喜奇詭 初看東明事 疑幻又疑鬼
徐徐漸相涉 變化難擬議 況是直筆
文 一字無虛字 神哉又神哉 ...
因思草創君 非聖卽何以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琉璃明王立 ... 初朱蒙在扶餘
娶禮氏女有娠 朱蒙歸後乃生...行至
卒本 見父王...王悅之立爲太子至是
繼位...二年 秋七月 納多勿侯松讓
之女爲妃...冬十月... 百濟始祖溫祚

立...二十一年...至國內尉那巖得之
...二十二年 王遷都於國內 築尉那
巖城 三上 261-262

廣開土王碑文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
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
世...巡行南下 路有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
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然後
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
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
王...昇天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百濟
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
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
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扶餘王薨 朱蒙
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
三下 15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一 百濟
始祖溫祚王...沸流溫祚 恐爲

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
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
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
利 難得之勢...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
成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
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
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
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
以扶餘爲氏 三下 15

로, 주몽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주몽은 모든 재능을 고루 갖추게 되었다.

나는 삼국사기와 구 삼국사에 나오는 해모수와 유화의 얘기를 이렇게 이해한다. 애당초 천신은 하늘나라에서 살게 마련이고, 하신은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 잠시 자기네들의 영역을 벗어나 함께 지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운명이다. 숙명적인 이별이 기본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의 로맨스는, 지상의 인간 세상에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주몽을 낳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했다.

동부여 왕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며 사냥을 하였다. 이들 일곱 왕자와 종자 40 여인이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주몽은 사슴을 아주 많이 쏘아 잡았다. 왕자들이 시기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매고 사슴을 빼앗았는데, 주몽은 나무를 뿌리 채 뽑아 버리고 가버렸다.

태자 대소가 왕에게, “주몽 이란 자는神通하고 용맹한 장사이며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고, 주몽으로 하여금 말을 기르게 하였다.

스스로 생각하니, 천제의 손자가 천하게 말을 기른 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마음 갈아서는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냥 두고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어느 날, 주몽의 어머니는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잘 달리는 말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목마장으로 가서 긴 채찍으로 말들을 어지럽게 때리니, 여러 말들이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한 마리 붉은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바로 이 말이 아주 잘 달리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몰래 바늘을 그 말의 혀 밑에 꽂아 놓았다. 말이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자, 심히 야위게 되었다. 왕이 목마장을 순시할 때, 여러 말들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그 말을 얻고 나자 바늘을 뽑고, 말이 다시 먹도록 했다.

주몽이 이별에 즈음하여 차마 떠나지를 못하니,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곡의 종자를 싸 주었다. 하지만 주몽은 살아생전에 이별하는 마음이 애절하여, 보리 종자를 잊어버리고 떠났다.

남쪽으로 내려가던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아마도 신모(神母)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 고 말을 하면서 활을 쏘자, 화살 한 개에 비둘기 한 쌍이 모두 떨어졌다. 비둘기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꺼내고 나서 물을 뱉으니, 비둘기들이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부여와 고구려는 발농사를 하는 지역이었다.)

남쪽으로 향하여 엄체수에 이르니,
건너려 하여도 배가 없었다.
채찍을 잡고 저 하늘을 가리키며 말한다.
천제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소.
불쌍한 고자의 마음을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차마 버리시리까?
말을 마치고, 활을 잡아 강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하여
높직이 다리를 이루어,
비로소 건널 수 있었다.
얼마 후 뒤를 쫓는 군사가 당도하여
다리에 오르니, 다리가 곧 무너졌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드디어 고구려를 창건한다.

扶餘隆墓誌銘

公諱隆...百濟辰朝人也 元[][]孫
啓祚... 割據一方[][][千]載 ...
氣蓋三韓 名馳兩貊...海隅開族 河
孫效祥...代業逾昌...威稜帶方... 桂
婁初擾 遼川不寧 ... 寔賴威靈...

天照大神之子正哉吾勝勝速日天忍
穗耳尊娶高皇產靈尊之女 上 135
...而生兒天火明命 次生天津彥根火
瓊瓊杵根尊 ...及至奉降皇孫火瓊瓊
杵根尊 於葦原中國也 是時 高皇產
靈尊 乃用...裏皇孫天津彥根火瓊
瓊杵根尊 而排披天八重雲 以奉降
之...于時 降到之處者 呼曰日向襲
之高天穗添山峯矣 及其遊行之時也
云云 到于吾田笠狹...上 161 [後遊
幸海濱 見一美人 上 155] 織經之
少女者...大山祇神之女... 木花開耶
姬...皇孫因幸...則一夜而有身 皇孫
疑之云云 遂生火酢芹命 次生 ...
彥火火見出尊 母誓已驗 方知 實是
皇孫之胤...兄...自有海幸 幸此云
左知 弟彥火火見出尊 自有山幸
上 163 ...內彥火火見出尊於籠中
沈之于海...棄籠遊行 忽至海神之
宮... 良久有一美人 ... 乃驚而還入
白其父母曰 有一希客者 ... 海神
於是... 以延內之 坐定 因問其來意
[海神聞之曰 試以察之 乃設三床請
入 於是 天孫於邊床則拭其兩足 於
中床則據其兩手 於內床則寬坐於
真床覆衾之上 海神見之 乃知是天
神之孫 益加崇敬 上 183] ... 已
而彥火火見出尊 因娶海神女豐玉姬
仍留住海宮 上 165 已經三年 ...
[天孫豈欲還故鄉歟...意望欲還上國
上 171] 時兄...既被厄困 乃自伏罪
曰 從今以後 吾將爲汝俳優之民
上 167 ... [於是 兄知弟有神德

遂以伏事其弟 上 175]... [其後
 火酢芹命 日以襁褓 而憂之曰
 吾已貧矣 乃歸伏於弟 上 179]...
 豐玉姬自馭大龜 將女弟玉依姬 光
 海來到 時孕月已滿 ... 其兒生之後
 上 179 ...宜號彥波瀲武鸕鷀草葺不
 合尊...海徑去[即入海去矣 上 185]
 ...故遣女弟玉依姬 以來養子也
 上 181 ...彥波瀲武鸕鷀草葺不合尊
 以其姨玉依姬爲妃 生彥五瀨命...
 次...次...次神日本磐余彥尊 上 185
 ...一書曰 先生彥五瀨命 次磐余彥
 火火出見尊 上 187
 於是天津日高日子番能邇邇藝能命
 於笠沙御前 遇麗美人... 大山津見
 神之女...木花之佐久夜毘賣... 詔吾
 欲目合汝奈何... 乞遣其父大山津見
 神之時 大歡喜而...一宿爲婚 ... 故
 後木花之佐久夜毘賣 參出白妾姪
 身 今臨產時 是天神之御子 私不可
 產...詔佐久夜毘賣 一宿哉姪 是非
 我子 必國神之子 爾答曰 吾姪之子
 若國神之子者 產不幸...即作無戶八
 尋殿...以火著其殿而產也... 所生之
 子名 火照命 次...次生子御名 火遠
 理命...火照命者 爲海佐知毘古 此
 四字以音...火遠理命者 爲山佐知毘
 古...弟火遠理命...海神之女... 豐玉
 毘賣命...見感 目合而 白其父曰 吾
 門有麗人 爾海神自出見 云此人者
 天津日高之御子...即於內率入而 ...
 即今婚其女...故至三年 住其國 ...
 然而其兄...三年之間 必其兄貧窮...
 而仕奉...於是海神之女 豐玉毘賣命
 自參出白之 妾已妊身 今臨產時...
 乃生置其御子而... 即塞海坂而返入
 是以名其所產之御子 天津日高日子
 波限建葺草葺不合命...因治養其御
 子之緣 附其弟玉依毘賣而... 是
 天津日高日子波限建葺草葺不合

형세가 좋은 땅에 왕도를 세우고
 군신의 위계를 정하였다.

(4) 유리 태자 편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유리명
 왕의 이름은 유리 혹은 유류라고 하는데, 주몽의 원자로서,
 어머니는 예씨 이다. 일찍이 주몽이 망명한 직후, 부여 땅에
 서 출생했다. 기원전 19년 4월, 왕자 유리가 부여로부터 어
 머니 예씨 부인과 함께 도망을 해 왔다. 주몽은 크게 기뻐,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 그 해 9월에 주몽이 향년 40세로 서
 거했다. 유리는 장사를 지내고 부친의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하였다.

유리 태자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규보의 기록
 과 비슷한데, 후자가 약간 더 구체적이다.

태자 유리는 어려서부터 기이한 데가 있었다. 소년
 시절에 참새 쏘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 잘못 활을
 쏘아 한 부인이 이고 가는 물둥이에 구멍을 내었다. 그 부인
 은 노하여, “아비도 없는 자식이 내 물둥이를 쏘아 구멍을
 뚫어 놓았다” 라고 욕을 하였다. 유리는 크게 부끄러워 진흙
 탄환을 쏘아서 물둥이에 생긴 구멍을 막아 전과 같이 만들어
 놓았다.

유리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천제
 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이 나라에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하여 남쪽으로 가서 국가를 창건하였단다. 너
 는 네 아버지한테 가보지 않겠느냐?” 고 물었다. 유리는 대
 답하기를: “아버지는 임금이 되었는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
 까?”

어머니 예씨는 말하기를: “너의 아버님께서 떠나실
 때 말씀을 남기시기를, 그대가 만약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내가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감추어 둔 물건

이 있으니, 그로 하여금 이것을 찾아 가지고 오게 하면, 나의 아들로 맞이하겠다고 하셨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온 산골짜기로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으나, 아무 것도 찾지 못하고 지쳐서 돌아왔다. 얼마 후, 유리는 집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 기둥을 보니, 과연 돌 위의 소나무였고, 기둥 모양은 일곱 모서리를 하고 있었다.

유리가 스스로 이해하기를,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라는 것은 일곱 모서리이고, 돌 위의 소나무라는 것은 바로 기둥이다.” 과연 기둥 위에는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에서 부러진 칼 도막 하나를 찾아냈다.

유리는 그 칼 도막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 3명과 더불어 길을 떠났다. 기원전 19년 여름 4월에 고구려에 이르러, 그 칼 도막을 주몽에게 받들어 올렸다. 왕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부러진 칼 조각을 꺼내어 맞추어 보았다. 그러자 두 개의 칼 도막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한 개의 칼로 되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

그 해 가을 9월 어느 날, 주몽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당시 그의 나이 40이었다. 유리 태자는 주몽이 남긴 옥 채찍을, 왕의 시신을 대신하여 장사 지냈다. 이규보의 시가 계속된다.

내 성품이 본래 질박하여,
기이하거나 괴상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에 동명왕의 사적을 보고
요술 인가 귀신 인가 의심하였으나,
서서히 앞뒤를 맞추어 서로 연관을 시켜 보니,
그 변화를 추측하여 의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물며 이것은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쓴 글이라,
한 개도 헛된 글자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 보건대, 창업을 하는 임금이란
성인이 아니면 어찌 가능 할 것인가?

命 娶其姨 玉依毘賣命 生御子名
五瀨命...次...次...次若御毛沼命 ...
亦名神倭伊波禮毘古命 古 130-146
五瀨命...故爾詔吾者爲日神之御子
古 150

五瀨命 ... 今我是日神子孫 上 193

[北]魏書 卷一百 列傳 第八十八
高句麗 高句麗者 出於扶餘 自言
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爲夫餘王
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
影又逐 旣而有孕 生一卵 ...
朱蒙告水曰 我是日子 河伯外孫

續日本紀 卷第四十 桓武天皇
延曆八年十二月 百濟遠祖都慕王者
河伯之女 感日精而所生...續五 452
延曆九年秋七月...百濟國... 貴須王
者 百濟始興第十六世王也 夫百濟
太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
而開國 天帝授籙 惣諸韓而稱王
續五 468

旣而伊奘諾尊 伊奘冉尊 共議曰 ...
何不生天下之主者歟 於是 共生
日神 號大日靈貴 一書云 天照大神
上 87

正哉吾勝勝速日天忍穗耳尊 娶高皇
產靈尊之女...爲妃而生兒 號天照
國照彥火明命 是尾張連等遠祖也
次天饒石國饒石天津彥根火瓊瓊杵
根尊 此神娶大山祇神之女子木花開
耶姬命 爲妃而生兒 號火酢芹命 次
彥火火見出尊 上 163

息長帶比賣命生御子 品夜和氣命
次大鞞和氣命 亦名品陀和氣命
古 226

三國志卷三十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夫餘傳
魏略曰 舊志又言 昔北方有高離之
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
云有氣如雞子來下 我故有身 後生
子 王捐之於亭中 豬以噉噓之 徙至
馬閑 馬以氣噓之 不死 王疑以爲
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
常令收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 以弓擊
水 魚鼈浮爲橋 東明得度 魚鼈乃
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
之地 - 180

漢書 卷七十三 韋賢傳 第四十三
孝武皇帝愍中國罷勞無安寧之時 ...
北攘匈奴 降昆邪十萬之衆 置五屬
國 起朔方 以奪其肥饒之地 東伐朝
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

三國志卷三十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夫餘傳 夫
餘在長城之北 去玄菟千里 南與高
句麗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
高句麗傳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
接...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
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
異...其馬皆小 便登山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又有小水
貊...挹婁傳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
極 挹婁古肅慎之國也... 其人形似
夫與 言語不與夫餘句麗同

梁書卷五十四 列傳第四十八 諸夷
百濟 ... 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리태자가 기원전 19년에 왕위를 계승했고, 기원전 18년 7월에는 왕비를 맞아 들였다고 기록을 한 다음, 바로 이어서, 그 해 10월에는 백제 시조 온조가 왕으로 즉위했다고 기록했다. 얼핏 보면, 고구려 본기로서는 이례적이라 생각될 수 있게, 남의 나라의 얘기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온조는 유리의 이복동생이었고, 만약 유리가 부여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온조가 주몽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었을 것이다. 그러니 유리 자신이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면, 이복동생 온조도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 왕실의 분위기를 김부식이 아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광개토왕 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였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내려왔으며 ... 남쪽으로 내려가다 부여의 엄리 라는 큰 강에 이르자 ...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들로 하여금 무리를 짓게 하라’ 고 말했다... 이리하여 강을 건너고, 비류 골자기의 흘본 서쪽 산위에 성을 쌓아 도읍을 세웠다. 왕이 왕위에 실증이 나게 되었을 때, (천제가) 황룡을 내려 보내 왕을 맞이하였다... 세자 유류왕은, 부친이 남긴 말씀에 따라, 인의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구 삼국사와 삼국사기 내용의 핵심 줄거리가, 414년에 작성된 이 비문에서, 모두 정확하게 재확인되는 것이다.

(5) 백제 시조 편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백제 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 이라고 한다. 주몽이 북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는데, 그곳의 왕이 주몽을 보자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후에 졸본부여의 왕이 돌아가자, 주몽은 왕위에 올라 고

구려를 세웠다.

주몽의 왕비가 된 졸본부여 왕의 딸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였고, 차자는 온조이었다. 그 후, 주몽이 북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인 유리가 뒤늦게 찾아 와서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신천지 개척을 결심하고 남쪽으로 떠나는데, 따르는 (졸본부여, 즉 고구려) 백성들이 많았다.

일행이 한산에 이르자, 장자 비류는 백성을 나누어 가지고 해변으로 가서 도읍을 정 하였다. 차자 온조는 [하북]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다. 비류가 정착한 지역은, 토지가 습할 뿐 아니라, 물도 염분이 많아서 농사를 짓고 살기가 힘들었다. 얼마 후, 비류가 위례에 와서 보니, 도읍은 안정이 되었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비류가 자신의 실패를 참회하다 죽으니, 그를 따라 갔던 백성들이 모두 위례로 돌아와 온조를 섬기게 되었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구 삼국사에서 백제시조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이규보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금 소개한 김부식의 얘기와는 틀림없이 좀 다른 데가 있었을 것이다.

백제 최후의 임금인 의자왕의 아들 부여웅(隆)의 묘비가 1920년에 중국 낙양에서 발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웅은 백제 진조인(辰朝人)이다... 본래 ... 자손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 ...의 한쪽 편을 차지하고, 천년을 이어 내려왔다 ... 공의 기백은 삼한을 압도하고, 그 이름은 양맥(兩貊)에 떨쳤다... 바다를 끼고 겨레를 이루니, 하손(河孫)으로서 상서로움을 나타냈고 ... 대대로 이어오는 국업이 융성하여 ... 그 위엄이 대방(帶方)에 떨쳤다 ... 마침내 계루(桂婁)가 어지러워지고 요하(遼川)가 평안치 못하게 되니 ... 어린 백성들을 이끌고 ...에 의지하게 되었다.”

부여웅의 비문은 백제 왕실을 물의 자손(河孫)이라 부르고, 백제와 고구려를 합쳐서 양맥(兩貊)이라 하여, 고구려와 그 뿌리(貊)가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백제 사람을 진(辰)나라 사람이라 하여, 백제가 마한 땅(辰國)에 정착했음을 말해준다.

(6) 야마토 왕국 건국설화와 고구려 건국설화의 유사성

오스트렐리언 국립대학교 아시아 역사센터의 *Senior Lecturer*인 Ken Gardiner는,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의 1988년 3월 호에 실린 “*Tradition Betrayed?: Kim Bu-sik and the Founding of Koguryo,*” 라는 논문에서, 이규보가 인용하는 구 삼국사의 기록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 사이의 차이점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이규보 기록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한편, 오오바야시 타료오는 *Acta Asiatica*의 1977년 1월 호에 실린 논문 “*The Origins of Japanese Mythology,*” 에서 야마토 왕국의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일본서기 신대 기록에 의하면, 야마토 왕국의 시조는 “해의 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이다. 아마테라스의 명을 받들고, 니니기는 새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늘나라로부터 히무카 땅의 소호리 산봉우리로 내려온다.

니니기는 바닷가를 노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잤는데, 그녀는 바로 다음날 임신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잠자리를 함께 한 바로 다음날 임신을 했다고 말하자, 니니기는 그녀가 자신과 관계를 맺기 전에, 근방의 어느 토착신과 이미 관계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의심을 했다고 한다.

이 대목도 흥미가 있지만, 그녀가 낳은 맏아들은 바다와 잘 어울리는 인물이고, 둘째 아들은 산과 잘 어울리는 인물인데,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받들어 모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더 흥미가 있다.

즉, 둘째 아들이 배를 타고 바다 속 해신의 궁궐에 이르러, 해신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해신은 그 낯선 청년이 정말 천손인가 시험을 해 보고, 분명히 천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잔치를 베풀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다. 니니기의 둘째 아들은 해신의 궁전에서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혼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 동안 곤궁하게 되어버린 형으로부터 받들어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바로 그때, 해신의 딸이 바닷길로 찾아와서 그에게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가 출산 현장을 보지 말라는 그녀의 부탁을 어긴 때문에, 그녀는 아들 하나를 낳아주고 다시 바다 속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니니기의 손자가, 후에 자신의 이모와 결혼을 해서 낳은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사람들의 시대에서 야마토 왕국의 시조가 되는 진무(이하레)이다.

일본서기 신대의 기록도 속명적인 이별의 이야기다. 천신과 해신이 잠시 함께 지낼 수는 있지만, 백년해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의 로맨스는, 지상 인간세계 왕국의 시조를 낳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고사기 에서는, 야마토 왕국의 시조인 “니니기-진무”와 직접 혈연관계가 있는 인물들에게, 천신의 아들 혹은 일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위서에 의하면, 주몽은 자기 자신을 해의 아들(日子)이며 강의 신 하백의 외손자라고 불렀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진무의 할아버지는 천신이고, 어머니는 해신이다. 진무의 형은, 자신이 일신의 아들(日...子) 혹은 일신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고구려의 건국시조 설화에서는, 주몽의 부친에 대해서 하늘의 아들, 천제의 아들, 혹은 “해” 모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햇빛이 (주몽의 모친 유화를) 따라다니면서 임신을 시킨다는 얘기를 한다. 고어에서 한자 해(解)는 우리말 해(日)와 똑같은 음을 가졌고, 한자 모수(慕漱)는 우리 고어의 머섬(사내)과 그 음이 유사하다.

속일본기는, 칸무 왕의 모친인 타가노(?-789년)가 코오닌(770-781년) 왕의 왕비였으며, 백제 무녕왕의 아들인 순타 태자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했다. 또 곧바로 이어서, 그녀(타가노)는 “백제 시조(遠祖)이며, 하백의 딸이 해의 정기를 받고(感日精) 낳은 도모왕”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했다. 속일본기는 이어, 백제 시조(太祖) 도모대왕은 일신의 령이 내린(日神降靈) 사람으로, 부여에 개국을 하고 천제의 뜻으로 한국의 모든 나라를 통솔하며 왕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속일본기는 백제 시조를 온조가 아니라, 그의 부친인

주몽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구 삼국사에 의하면, 천신의 아들이 하신 딸과 눈이 맞아(目送頗留意) 하백의 궁궐에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아들(주몽) 하나만 얻고 결혼생활은 계속하지 못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니니기의 둘째아들(진무의 조부) 역시 해신의 딸과 눈이 맞아(乃見感 目舍而) 해신의 궁궐에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 아들 하나만 얻고 결혼생활은 계속하지 못한다. 이들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도, 우리는 (주제의 유사성뿐 아니라) 놀랄만한 표현상의 유사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대 기록을 보면, 진무의 조부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즉 진무의 증조부)이며 아마테라스의 손자라는 니니기 역시 둘째 아들 이었다. 인대 기록에 의하면, 진무(이하레)의 형은 일본열도 정복 길에 나섰다가 첫 번째 육지전투에서 전사하고, 함께 떠났던 둘째 아들 이하레가 야마토 왕국을 창건한다. 시호가 오오진 이라는 호무다 역시 신공왕후의 둘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

나는 니니기-진무-오오진 이라는 “둘째 아들” 복합인격이 바로 야마토 왕국의 시조 호무다 한 사람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구 삼국사-삼국사기 고구려 건국설화와 고사기-일본서기 건국설화를 비교 해 보면, 하늘에서 천신 혹은 일신의 아들이 내려오고, 강의 신 혹은 바다의 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로맨스는 지상 인간세계 왕국의 시조를 낳아주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하는 숙명적인 이별이 따르고, 만아들은 실패를 하고 둘째 아들이 성공을 한다는 공통 주제를 발견한다. 본질적인 사고의 틀을 분석해 보면, 동일한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서술한, 같은 유형의 건국 설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쪽 건국 설화의 원형을 감추는 표현상의 차이는, 시대적이며 지정학적인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삼국사기는 중화 사대사상과 유교 도덕관에 얽매인 12세기 고려인의 작품이다. 반면,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바다 건너, 또 신라라는 완충지대를 지나서 위치해 있는) 중국이란 존

재와 중화 사상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었던, 8세기 초 야마토 조정의 작품이다. 만주 송화강 유역 평원에 존재했던 부여국 (북부여 혹은 동부여) 왕실의 특이한 구성원인 주몽이, 남쪽 졸본부여 지역으로 내려와, 기원전 37년 장백산맥의 끝자락 등가강(修佳江) 변에 고구려라는 새 왕국을 세운다. (유리 때 압록강 변의 국내성으로 이전한다.) 주몽의 아들 중 온조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 당시 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한강변에 백제라는 새 왕국을 세운다. 그로부터 4백여 년 후, 백제 왕족 하나가 무리를 거느리고, 백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남쪽 바다를 건너, 신천지 야마토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는 역사의 큰 줄거리이다.

야마토 왕국 시조의 건국 신화가, 고구려 시조 주몽의 건국 신화와 유사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7) 고구려 건국 설화의 역사적 무대

부여는 B.C. 3세기와 5세기 사이의 어느 때인가 대흥안령 산맥 동쪽의 만주 송화강 유역 평원에서 (고조선 부족 국가들 중의 하나로) 탄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는 A.D. 346년에, 전연(337-370년)이라는 나라를 세운 선비족의 침공으로 와해되었는데, 이 전연이 망한 후에 그 잔존 세력들이 고구려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

위서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魏略)을 보면, 부여의 시조가 바로 동명이고, 고구려 주몽의 건국 설화는 바로 부여의 건국 설화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략의 부여 시조에 관한 얘기는 이러하다. 옛날, 북방에 고리(高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의 시녀가 임신을 했다. 왕은 시녀를 죽이려 했는데, 그녀는 “계란과 같은 기운이 내려 와서 그 때문에 임신을 했다” 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은 유화의 얘기와 아주 흡사하다. 그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동명” 인데, 동명이 남쪽으로 달아나 시엄수(송화강?)를 건

너 부여의 땅에 도움을 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부여, 고구려-백제, 야마토 왕국 등의 건국 신화들은 모두 동일한 계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략은, 서진 무제의 태강 년 간(280-289년)에 어환(魚豢)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위 나라의 역사책이다. 삼국지 위서보다 그 몇 해 앞서 편찬이 된 책인 것 같다.

기원전 108년 경에 한 4군을 설치한 전한 무제(武帝: B.C. 141-87년)는, “북으로는 흉노를 물리치고 ... 동으로는 흉노의 왼팔을 잘라내기 위해, 조선을 정벌하여 현토, 낙랑을 세웠다” 고 말했다. 당시 한 무제가 말한 “흉노의 왼팔”이라는 조선은, 란하(濛河)의 동쪽과 한반도에 살고 있던 소위 동이(東夷)들에 속한다.

란하의 동쪽 땅에서는 B.C. 1000년 경부터 청동기 시대가 전개되면서 칼 앞이 비파 모양으로 크게 굴곡을 이룬 비파형 청동 단검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B.C. 500년 경 이후로부터는 칼 앞이 좁아지고 굴곡이 완만한 개량형의 세형동검이, 흉노의 왼팔인 동이들의 본거지라는, 요동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사용되었다. 같은 시대에 중원에서 사용된 중국식 청동검은, 칼 앞이 곧고, 칼 몸과 칼자루 및 머리장식 등 세 부분이 한꺼번에 주조된,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당시 요동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과 한반도의 진(辰)국, 즉 부여-고구려-삼한 지역의 청동 문화는 중국 중원의 청동문화와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한다. 이 지역이 바로 지석묘(支石墓)의 분포 지역과 일치하며, 지석묘 문화가 발전하여 형성된 석관묘, 석곽묘, 적석총 등에서 비파형 동검이 집중적으로 발굴된다. B.C. 500년 경 이후, 동이 땅에는 철기시대가 시작된다.

중국에서 춘추시대(B.C. 770-476년)는 전국시대(B.C. 475-221년)로 이어진다. B.C. 1700년경을 전후로 시작한 청동기문화는 B.C. 700년경에 철기시대로 바뀌었다. B.C. 318년, 흉노는 전국시대의 제후국인 진, 한, 위, 조 등을 공격해 왔다. 북쪽의 흉노(北匈)와 동쪽의 동이들의 거듭된 침략 때문에, 북부 중국의 여러 왕국들은 제각기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B.C. 215년에는, 장안(서안)에서 위하(渭河)를 건너 북서쪽으로 2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함양(咸陽)에 수도를 정한 진(秦) 나라의 시황제(B.C. 246-210년)가 요동만 연안의 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흥안령 산맥의 남단을 돌면서, 일찍이 연(燕)과 조(趙)가 축성한 북변의 장성들을 새삼 연결함으로서, 마침내 서쪽으로 감숙(甘肅)까지 도달하게 되는, 소위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훗날 명나라 때(1368-1644년) 완성이 된 이 만리장성은, 내몽골 고원의 고비사막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그 지역을 흐르는 황하를 두 번이나 가로지르며, 자위관(嘉峪關)까지 총 연장 7,352km나 계속되고 있다. <주3-1>

(8) 실크 로드

전한과 당나라의 수도였던 서안(장안)을 출발해서, 감숙성의 란주를 거쳐, 자위관 까지 만리장성을 따라가다가 돈황에 도착한 다음, 타클라마칸 사막(오늘날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속하는 동 투르키스탄)의 변두리 오아시스들을 지나 카쉬가라에 이르러, 파미르고원을 넘고, 안디잔 과 페르가나를 지나,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서 투르키스탄(즉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오아시스들을 거쳐, 카스피 해를 남쪽으로 돌아,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오아시스 루트를 실크 로드라 한다. <주3-2>

일찍이 B.C. 138년, 장건(張騫)이 전한 무제의 명을 받고 (흉노족에 의해 타클라마칸 서쪽으로 쫓겨 간) 중앙아시아의 월지(月氏) 종족을 찾아간 것이 실크 로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다. 월지라는 종족은 훗날 인도 서북쪽에 쿠산 왕조(45-450년?)를 세운다.

타클라마칸은 투르크어로 “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 ” 이라는 뜻이다. 사막의 북쪽으로는 천산산맥이 있고, 서쪽으로는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고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티베트 고원의 북쪽 벽을 형성하는 카라코람 과

<주 3-1>

만리장성의 시발점인 요동만의 산해관은, 우리나라의 신의주와 마찬가지로, 북위 40 도 선상에 위치한다. 지도를 보면서 북위 40 도 선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곧바로 북경이 나오고, 계속 가면 자위관이 나온다. 좀더 가면 돈황(敦煌)도 나온다. (북경과 자위관 사이의 만리장성은, 고비사막의 남쪽 변두리 산악지대를 돌아보니, 남쪽으로 활 모양으로 휘어지는데, 감숙성의 성도인 란주 부근의 성벽은 37 도 선까지 내려온다.) 대략 북위 40 도 선을 따라 신강성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질러 계속 가면, 파미르 고원의 북부를 지나 우즈베크의 사마르칸트를 지나게 되고,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터키의 앙카라, 스페인의 마드리드, 미국의 필라델피아, 컬럼버스, 인디애나폴리스, 샌프란시스코의 북쪽을 지나게 된다. 북위 40 도 선상의 지명들이다.

<주 3-2>

친가가 투르크-몽골계 티무르 왕실(1370-1500년)이고, 외가가 차가타이계 몽골 왕족이며, 그 유명한 바부르 나마(Nama, 일기)를 손수 기록한 무갈제국(1526-1858년)의 시조 바부르(Babur)는 파미르고원 바로 서쪽의 안디잔에서 태어났고, 11살 때 페르가나를 물려받았다. 페샤와르에서 라호르를 거쳐, 델리 서쪽의 타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자이살머어에 와서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내려가 인도 서해안의 수라트 항구에 도착한 다음, 배를 타고 아라비아 해를 향해하여 페르시아만을 거쳐(혹은 홍해를 거쳐), 다시 육로에 올라 지중해에 도착하는 실크 로드도 있다.

<주 3-3>

8 세기 초, 신라 화랑 혜초는 승려가 되어 16 세의 나이로 인도의 불교 유적지 순례의 길에 올랐다. 중앙 아시아 일대까지 답사를 한 혜초는, 30 세가 넘어 장안으로 돌아와, 왕오 천축국전 등을 저술했다.

<주 3-4>

실크 로드의 중간 지점에서, 동과서의 교역을 상당기간 독점 중개한 존재는 소그드(Sogd)라는 종족이었다 한다. 소그드인들은 자신들의 동쪽과 서쪽에 존재하는 양쪽의 실체를 철저하게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로마 사람들은 비단의 출처를 정확히 몰랐고, 당나라 사람들은 유리잔의 출처를 잘 몰랐다고 한다. 동서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크 로드는 476 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의 동로마 제국(395-1453 년) 전반기에 해당하는 당나라 때(618-907 년)가 최고의 전성기이었다. 7 세기에 마호메트(570?-632 년)로부터 시작된 이슬람교는, 15 세기에 와서, 타클라마칸과 그 서쪽의 모든 아시아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다.

곤륜(崑崙, 암흑이라는 뜻) 산맥들이 있고, 동쪽에는 고비 사막이 있다. 천산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동쪽의 룽 노르 호수로 흐르는 강 이름을 따서 타림분지라고도 부른다.

당나라의 현장(玄奘: 602-664년)법사는 629년에, 천산 남로라고 부르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 오아시스들을 거쳐서, 카쉬가르에 도착한 다음, 탁스코르간을 향해 파미르 고원을 남쪽으로 가로 질러, 힌두쿠쉬 산맥 남쪽에 위치한 질라스 와 페샤와르를 거쳐 (즉 간다라 왕국이 위치했던 지역을 거쳐서), 인도로 간 것이다. <주3-3>

한(B.C. 206-A.D. 220년), 위(220-265년), 서진(265 -316년), 당(618-907년) 등의 전성기를 거치고, 서방과의 접촉을 끊어버린 명(1368-1644년)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실크 로드란 비단, 도자기, 칠, 계피, 약초, 청동 거울 등을 가지고 중국을 출발한 캐러밴과 금, 보석, 모직물, 면직물, 상아, 호박, 소다 유리(잔), 석면 등을 가지고 유유럽 쪽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 부근까지 와서, 교역을 할 수 있게 해 주던 길이다. <주3-4>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 경부터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원 후 2세기에 와서는 (아라비아 해를 사용하는 실크 로드가 지나가는) 인도 역시 양잠업을 배워 비단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미 1세기부터 로마 사람들은 금을 주고 사들인 비단 옷을 즐겨 입기 시작했다.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527-565년)는 중국에 가 있던 2명의 페르시아 승려들로 하여금 누에고치를 대나무 지팡이 속에 숨겨 (550년경에) 콘스탄티노폴로 가져오게 했다. 드디어 유유럽에서 이 튼튼한 누에고치들을 시조로 하는 양잠업이 시작되었고, 15세기에 와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대량생산이 될 수 있었다.

(9) 북 몽골로이드 인종집단

현대 한국인은 터어키인, 몽골인, 만주인 등을 포함하는 북(北) 몽골로이드 인종집단에 속하며, 한국어는 터어키

어, 몽골어, 만주어 등을 포함하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고대에 흉노, 선비, 돌궐, 조선-진국(혹은 부여, 고구려, 삼한) 등으로 불려진 인종-언어 집단의 한 후손인 것이다. 이들의 고대 종교는 샤머니즘이었다. 나는 상당히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된 “북 몽골로이드 인종 집단”을 그냥 간단히 “투르코-몽골 족”이라고 부른다.

흉노족은, B.C. 4세기 말부터 A.D. 1세기 말까지 몽골 고원과 동 투르키스탄 일대의 오아시스 국가들을 지배한 종족이다. 후한 광무제 때, 남쪽의 흉노는 후한에 복속되어 섬서(陝西), 산서(山西) 등지로 이주 했다가, 5호16국 시대(316-439년)에 이르러 전조, 후조, 북량, 하 등을 세웠다. 북쪽의 흉노는 몽골고원의 서쪽으로 옮겨가서 2세기 후반 경에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스 초원지대로 이주하게 되었다. 5세기에 로마제국을 공격한 훈족이 바로 흉노라고 추정되고, 7세기에 몽골 고원을 지배했던 돌궐족은 스스로 흉노족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대흥안령산맥 동쪽의 종족들은 크게 숙신(肅慎)계, 예맥(濊貊)계, 동호(東胡)계로 나누어진다. 숙신계는 주로 송화강 하류와 흑룡강 동부지역에 근거를 두었고,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읍루(挾婁), 물길(勿吉), 말갈, 여진, 만주족으로 불려왔다. 이 가운데 말갈족은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698-926년)를 세웠고, 여진족은 금(1115-1234년), 만주족은 청(1644-1911년)을 세웠다. 예맥계는 송화강 상류와 요하 주변에 근거를 두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졌다. 동호계는 주로 대흥안령산맥 동쪽에 근거를 둔 오환(烏桓), 선비, 거란(契丹), 몽골 등이다.

선비족은, 한나라 시대에, 대흥안령산맥 일대에서 란하 계곡을 따라 남쪽의 요서지역으로 내려왔다. 후에 북쪽의 흉노족이 서방으로 옮겨가자 그 지역을 모두 차지했고, 외몽골 지역에 남아있던 흉노족 10여 만호를 흡수했다. 5호16국 시대에는 모용, 걸북, 우문, 탁발 등 선비 부족들이 모두 나라를 세웠다. 선비 모용부는 연(燕)을 세워 전연(337-370년), 후연(384-409년), 북연(409-436년)으로 이어졌다. 선비 탁발부는 북위(386-534년)를 세워, 439년 경에 북부 중

<주 3-5>

이기문(1972: 34)에 의하면,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卷 37)에 “王逢縣 — 云皆伯”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pak(伯-逢)은 동사이고, 왕(王)을 의미하는 kai(皆)는 부여 관명(官名)의 ka(加), 몽골어의 qaran(카한), qan(칸) 또는 신라어 관명의 한(翰), 간(干) 등과 같은 것이라 한다.

국을 거의 전부 통일했다. 모용연에게 격파된 다른 선비족들이 우문, 해, 거란으로 나뉘어 북쪽으로 달아난 4세기 전반 이후, 거란(Qitan)이란 명칭이 동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역사책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후에, 선비 우문부는 북주(557-581년)를 세웠고, 거란은 요(916-1125년), 몽골은 원(1271-1368년)을 세웠다.

바이칼호수-알타이산맥-고비사막-대흥안령산맥 등으로 둘러싸인 몽골 고원으로부터, 알타이산맥 서쪽 방향으로, 북위 45도와 50도 사이의 스텝 지대를 따라 이동을 한 투르크-몽골 족의 대부분은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했다. 알타이 산맥이란 황금의 산맥이라는 뜻이다. 이 주변지역 유목민들이 황금 장식을 좋아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알타이 산맥은 아주 험준하지만, 중간 중간에 강이 흐르고 초원이 있어, 동서간의 통로를 제공 한다.

몽골 고원으로부터 대흥안령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을 하여 만주 평원에 정착한 사람들은, 발농사를 짓는 반(半) 유목민으로 변신을 했다. 물론 반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면서도, 말 재갈, 말안장, 말등자는 필수품이었고, 활, 칼, 창은 핵심 무기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를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논농사를 지으며 완전한 농경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다. 경남 창녕읍 교동 고분에서는 청동 각배(뿔 모양의 잔)가 발견되었고, 김해 대성동 가야 고분에서는 작은 청동 술이 발견되었다. 청동 술은 유목민들이 고기를 삶는데 주로 사용했었다. 중앙아시아 출토품과 유사한 금관과 보검등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유목민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며 사용하던 뿔잔은, 정주 농경사회인 삼한(三韓) 땅에서, 받침이 달린 안정된 형태의 각배로 바뀌게 되었다.

옛 몽골어와 만주어에서는 군장(君長) 또는 대인(大人)을 한(汗) 혹은 카한(可汗)이라 불렀고, 부여에서는 카(加)라고, 신라에서는 칸(干), 큼(今), 캄(邯)이라고 불렀다. 고구려어에서는 왕을 카이(皆)라고 불렀다.<주3-5> 따라서, 삼한의 한(韓)이라는 명칭은 해당 지역의 최고 통치자에 대한 호칭이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 한자의 음을 빌어 표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윤내현, 1986: 226-7).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도, 수로왕이 나타나기 전에, 아홉 명의 칸(干)들이 백성을 통솔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정주 농경 사회에 남아있는 투르크-몽골 유목민족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알타이 어족(語族) 중에서도 부여-고구려-백제어는 한 계통의 동일한 언어이며, 이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의 방언(方言)으로 가야(변한)어, 신라(진한)어, 마한어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며 언어(言語諸事)등이 부여와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에 금나라를 세운 흑수말갈 생여진족의 선조로 추정되는 숙신-읍루 종족의 언어는 부여-고구려와 다르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양서 백제전은 백제사람들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말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들 언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이기문, 1972: 32 참조). 한반도에서는 신라 방언을 중심으로 언어적 통일을 이루어 현대 한국어를 형성하게 되었다.

썰크 로드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동서간의 이동 통로는, 시베리아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타이거 삼림 지대의 남방에 펼쳐진, 북위 45-50도 선상의 스텝 초원 지대를 가로질러 아랄해와 카스피해 북부 연안에 이르는 스텝 루트이다. 12-3세기 몽골 제국의 (헝가리 초원에까지 이르는) 정복 통로가 바로, 천산(天山)산맥 북쪽을 지나가는, 이 북위 45-50도 사이의 스텝 지대이었다. <주3-6>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바이칼호는, 336개의 하천이 흘러들어 지표상 담수의 1/5정도를 수용하며,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1,620m) 내륙호수이다. 1,200종이 넘는 동물과 600종 가까운 식물이 서식하는데, 이 가운데 3/4정도가 바이칼호의 고유종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마치 바이칼호수로부터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투르크-몽골 족이 샘솟듯이 올라와서, 서쪽으로는 알타이산맥을 넘어 유유럽 평원까지, 남쪽으로는 고비사막을 지나 중원의 평지까지, 동쪽으로는 대흥안령 산맥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끊임없이 넘쳐

<주 3-6>

지도를 보면, 북위 45 도와 50 도 사이에는 옛 부여가 자리 잡았던 송화강 유역 평원의 북부지역이 위치하고, 대흥안령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가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알타이 산맥, 제이산 호수, 발하쉬 호수,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즈 스텝, 소련의 볼고그라드(스탈린그라드), 우크라이나의 오데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저어머니의 뮌헨, 프랑스의 파리,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 몬트리얼, 오타와, 밴쿠버, 미국의 씨애틀 등을 지나게 된다. 북위 45 도 이북의 강들은 거의 모두 북쪽으로 흐르고, 45 도 이남의 강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흐른다.

흘러가, 물결이 도달하는 지역마다 핵융합에 비견되는 인종적, 문화적 화학작용을 거듭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서쪽으로 흘러간 투르코-몽골족은 인도-유유럽어를 사용하는 아리아족과 충돌과 혼혈을 계속했다. (선사시대 때, 아리아족은 이란과 인도의 북부에 살았다고 한다.) 요즘 몽골 사람들의 생김생김을 (아리아족과의 혼혈이 심했던) 터어키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옛 몽골고원의 원형이 그대로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몽골과 한반도인 것 같다.

고구려의 건국 설화를 보자.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추모)이라 부른다. 맥궁은 고구려의 소수맥(小水貊)에서 만들던 좋은 활을 말한다. 주몽은 적은 수의 화살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슴을 잡는다. 주몽의 모친은 아들에게 신천지 개척을 권한다. 주몽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부여를 떠나 남하를 할 때, 모친은 주몽에게 좋은 말을 골라준다. 위략에 의하면 부여의 시조가 동명인데, 동명 역시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를 보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사슴과 호랑이를 잡는다. 만주인이 중국대륙을 통일하고 세운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 1661-1722년)에 의하면, 말을 어지간히 잘 타지 못하면, 절대로 달리는 말위에서 활을 쏠 수가 없다고 한다. 어른이 되어 말을 능숙하게 다루려면, 아무리 늦어도 열 살 정도엔 겁 없이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pence, 1974, 2001: 58).

주몽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발농사를 짓는 대흥안령 산맥의 동쪽 땅에도 흉노-선비-돌궐-몽골 유목 민족의 습속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세기 몽골군의 전통은, 10인의 장을 아르반(Arban), 100인의 장을 야군(Jagun), 1000인의 장을 밍한(Minghan), 10,000인의 장을 투멘(Tumen)이라 부른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투멘이라는 단어가 주몽-추모-도모 와 그 어원을 같이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 대흥안령 산맥의 동쪽, 만주 송화강 유역 평원에서 발농사를 짓고 있던 반 유목국가인 부여국 (북부여 혹은 동부여) 왕실의 특이한 구성원인 주

몽이, 기원전 37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거느리고 남쪽 졸본 부여 지역으로 내려와, 장백산맥의 끝자락 동가강(修佳江)-압록강 변에, 고구려라는 새 왕국을 세운다. 주몽의 아들 중 온조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 당시 마한 사람들이 논농사를 지으며 완전한 정주 농경사회를 영위하고 있었던 한강변에, 백제라는 새 왕국을 세운다. 그로부터 4백여 년이 지난 후, 백제 왕족인 호무다는, 백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남쪽 바다를 건너, 일찍이 가야(변한)에서 건너와 (아이누-말라요폴리네시안 선주민들과 어울려) 정착을 한 사람들이 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야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10) 한반도에서의 논농사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B.C. 1,000년 경부터 논농사를 짓기 시작 했던 것으로 추정을 했었다. 하지만, 근래에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일대의 이탄층 상부에서 발견된 탄화미를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해 본 결과,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B.C. 2,000년 이전의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김포 지역에서의 볍씨 발견과, 양자강 연안의 해류가 6월과 8월 사이에 동북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볍씨의 황해 횡단설이 더욱 설득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영산강 하류와 울산 방어진의 신석기시대 이탄층에서도 벼의 꽃가루가 검출되었었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가장 오래된 볍씨는 1만여 년 전의 것으로, 중국의 호남성(湖南省)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1998년에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일대 토탄층에서 출토된 볍씨를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한 결과, 1만3000년 이전의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게 정말 정확한 검증 결과라면, 한반도에서의 쌀농사는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Chapter 4 begins at 69.